

무형 이익 창출하는 포스코의 글로벌 경영

박은정 포스코 홍보실 홍보기획팀

culture art

포스코는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메세나 대상'을 수상했다.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여는 기업이미지 제고는 물론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더 많은 무형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지속발전가능 경영에 앞장서는 모범기업으로서 포스코는 메세나 대상 기업에 걸맞게 메세나 활동의 대상과 종류를 지속·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산업부문 및 기술부문에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여러 차례 수상해 온 포스코가 이번에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메세나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명실상부 지속발전가능 경영에 앞장서는 모범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문화의 선진화와 문화예술 지원활동

포스코는 주사업장이 있는 포항과 광양지역에 1980년과 1992년에 '효자아트홀'과 '백운아트홀'을 각각 건립하여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관람 기회가 적은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해 오고 있다. 포항 '효자아트홀'과 광양 '백운아트홀'에서 지방도시에서 접하기 어려운 고품격 음악회를 비롯해 연극, 영화, 뮤지컬, 국악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연간 40여 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메카로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도 '포항국제불빛축제', '광양시민의 날' 등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 이벤트를 마련하여 지역문화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포스코는 1999년부터 서울 포스코센터 로비를 공연장으로 개방하고 최근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서울에서는 국내기업 중 유일하게 사옥 로비에서 펼쳐지는 '포스코센터 음악회'는 서울 시민들에게 건전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12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클래식,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을 선보이고 있으며, '캠퍼스 음악회'는 사내개최 문화행사의 한계를 뛰어 넘어 대학생 및 인근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수준



'포항국제불빛축제'의 현장



서울 포스코 센터의 전경

높은 음악공연을 펼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센터는 '아트홀'에서 우수 영화를 상영하고, '포스코미술관'을 개방하여 신예작가들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하는 등 폭넓은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포스코센터 주변과 포항, 광양제철소 직원주택단지 내에는 국내외 유명작가들의 조형물 등을 설치해 수준 높은 미술품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우리의 전통 문화 유산 보존을 위해 철재문화재를 중심으로 '1문화재 1지킴이'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으며 각종 문화예술 단체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무형 이익 창출하는 포스코의 글로벌 경영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기업 본연의 의무인 경제적 수익

성 창출 외에도 환경적 건전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균형적·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CSM: 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을 글로벌 경영이념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메세나 활동도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기여는 일방적인 부담이 아니라 기업이미지 제고는 물론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더 많은 무형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포스코는 현재 펼치고 있는 메세나 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메세나 대상 기업에 걸맞은 메세나 활동의 대상과 종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